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2부 42

탐진 청자들

청자는 항아리나 주전자, 향로, 사발과 대접, 발우 등 생활 용기에서 청자기와 생산을 분기점으로 건축자재까지 영역을 넓혀갔다. 물론 왕실이나 사찰 등에서 청자자판이나 청자전을 주문하면 이전에도 만든 적은 있었다. 다만 귀족들이 청자 건축부재로 집을 장식하는 예는 아직은 드물었다.



월등사 스님들이 대구소를 자주 오는 것도 월등사 전각이나 경내에 쓰일 청자전이 필요해서였다. 월등사 스님들은 탐진에 오면 반드시 대구소 향리부터 찾았다.

“향리 나리 계시오?”

“으디서 오셨는게라우. 향리 나리는 출타하셨는디 쪼간 지달려야 쓰겼그만요.”

“월등사에서 왔소. 향리 나리가 올 때까지 여기 당전에 있겠소.”

“다시 오시든 안 되겠는게라?”

“어째서 그렇소.”

“여그 가마덜을 한 바꾸 돌아보고 오신다고 했그만요.”

“무슨 일이 있소?”

“왕실에서 주문헌 청자자판덜이 맴 묵은 대로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요.”

“아, 혜음령 밑에 짓는 혜음원 행궁에 보낼 청자 건축부재들이구만요.”

“진작에 주문이 왔는디 잘 맨들라고 허다 봉께 자꼬 늦어지고 있그만이라.”

대구소 치소를 지키고 있던 늙은 군관이 월등사 스님에게 깍듯하게 예를 갖추어 말했다. 늙은 군관의 말은 모두 사실이였다. 혜음원에 행궁과 절을 조성하면서 작년부터 청자 건축부재를 주문해왔지만 도공들은 익숙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했던 것이다. 늙은 군관은 할 수 없이 군사 하나를 불러 향리에게 보냈다.

“월등사 스님이 오셨다고 향리 나리께 전허게.”

“예, 나리를 모시고 오겠습니다요.”

월등사 스님이 매우 만족해했다. 늙은 군관이 다시 말했다.

“절에서 필요헌 것이 뭇인게라?”

“지난번 가져간 청자전이 부족해서 또 왔소.”

청자전은 법당 벽을 장엄하기 위해 사용했다. 연꽃을 음각한 청자전을 법당 외벽에 덧붙였는데 더 필요했던 것이다. 외벽에 청자전을 붙이려고

한 것은 비바람에 흠벽이 잘게 부스러지곤 해서였다. 그리고 경내 마당에도 청자전을 듬성듬성 깔아놓으면 장대비가 쏟아져도 징검다리처럼 요사채에서 법당까지 건너다닐 수 있을 터였다.

“청자전이 참말로 겁나게 들어가부요잉.”

“경내 마당에 까는 것은 얼마 들지 않아도 법당 외벽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소.”

월등사 스님은 대응전 말고도 다른 전각들까지 외벽에 청자전을 붙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늙은 군관 옆에 있던 젊은 군사가 말했다.

“스님, 법당 벽에 석회를 바른 간단허지라우.”

“석회가 비에 약하니까 비가 들이치는 벽에 청자전을 붙이려고 하요.”

“지는 사치라고 보그만요.”

젊은 군사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젊은 군사를 설득했다.

“대응전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관음전에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극락전에는 아미타부처님이 계시오. 이처럼 거룩한 부처님들이 계시는 법당이 초라하면 되겠소? 부처님을 잘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장엄하는 것이오. 그래야 참배하러 온 분들이 부처님을 더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겠소? 법당 외벽에 청자전을 붙이려고 하는 것은 비바람에 흠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고, 월등사를 찾아오는 선남선녀를 위한 것이니 그리 아셨으면 좋겠소.”

그래도 젊은 군사는 입술을 꾸뻑꾸뻑 하더니 당전을 나가버렸다. 젊은 군사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생각하는 군사가 더러 있었다. 청자전을 월등사까지 운반해야 하는 고단한 사역 때문에 그러는지도 몰랐다. 지게나 들것에 청자전을 나를 때는 군사들 사이에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던 것이다.

그때 대구소 향리가 나타났다. 말에서 내린 대구소 향리가 스님을 보고 미안해했다.

“스님이 오실 줄 몰랐그만요. 알았으면 나가지 않았지라. 급헌 일이 있어 나간 것은 아닌께라.”

“미안하오. 장마철 전에 불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 마음이 급했나 보오.”

“월등사에서 주문헌 청자전은 다 준비가 돼 있지라. 청자전은 성형이 간단해서 굽기가 수월하지요.”

“도공들이 월등사 일 말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소?”

“상감헌 청자자판을 맨드는데 에렵그만요. 음각은 간단헌디 상감은 무자게 정교하고 복잡허그만요.”

“왜 그렇소?”

“그림에 소양이 읊으면 상감헌 청자자판은 조잡해지드그만요. 아무나 상감 청자자판을 허는 것이 아니그만이라.”

“그래서 월등사 청자전은 수월하다고 했구먼요.”

“그라지라. 연화문양판이나 당초문이라 불리는 인동초 넝쿨 문양은 찍어붙든 된께라.”

그제야 스님은 음각과 상감의 차이를 이해했다. 작년에 월등사로

가져왔던 토기와장 가운데 암막새와 수막새에 찍힌 연화문과 당초문이
그런 과정을 거쳐 구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스님, 쪼깐만 지다리시믄 된께 염려 마시지라.”

“청자전이 다 돼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되오. 그럼, 소승은 이만
가겠소.”

“군사덜 편에 올려보낼텐께 그리 아시지라.”

월등사 스님이 당전을 나간 뒤 대구소 향리가 늙은 군관에게 말했다.

“한 바꾸 돌아봤더니 청자자판에 들어간 그림덜이 엉망이여. 사발이나
대접은 이미 있는 문양덜을 연습허믄 숙달이 되는데 자판을 채우는
그림은 소질이 있어야 허겄드랑께.”

“그라졌지라. 그림에 소질이 있는 도공덜은 오리를 산 거멩기로 그려
불드그만요.”

“상감이 아닌 청자덜은 기가 맥히게 잘 맨들어부렀는데 판로가 으쩍지
모르겠소. 인자는 상감이 유행인께 말이요.”

대구소 향리는 상감청자만 가치 있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조각이
뛰어난 청자도 탐진에는 많았던 것이다. 탐진 골짜기에 있는 가마들을
돌면서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었다. 조금 전에 본 청자주전자도 기가
막혔다.

높이가 어른 손으로 한 뼘쯤 되는 청자주전자였다. 차나 술을 여러 잔
마실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인 청자주전자였다. 조각이 탁월했다. 몸통은
연꽃 위에 거북이 앉아 있는 형태였다. 그런데 머리와 앞가슴은 용의

형상이었다. 거북이와 용의 모습이 섞인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연’이라는 동물이었다. 뚜껑은 연꽃이 피기 전인 연꽃봉오리 모습이였다. 손잡이는 연꽃 줄기를 두 가닥으로 꼬아 거북이등에 붙였는데, 손잡이 끝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연꽃봉오리 뚜껑과 줄로 연결돼 있었다. 뚜껑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연듯빛 비색은 아니지만 청록색으로 빛깔도 탁하지 않았다. 아마도 스님들이 다관(茶罐)으로 선호할 만한 청자거북이와 용모양주전자였다.

용운마을 가마에서 본 연꽃봉오리를 물고 있는 연적도 탐이 나는 작품이었다. 헤엄치는 오리가 연꽃봉오리를 물고 있는 모습인데 두 가닥을 끈 연줄기는 오리 등으로 올라가 뚜껑에 닿아 있었다. 뚜껑도 연꽃봉오리 형태인데, 몸통에서 잘 빠지지 않게 하부가 썩기 모양으로 길었다. 날개의 깃털들은 꼬리 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가 움직이고 있는 듯 음각되어 있고 눈동자는 철화점을 찍어 또렷했다. 청자오리모양 연적이 뛰어난 것은 투명한 비색이라는 점이였다. 귀족대신들이 욕심낼 만 한 수준으로 개경에 올라가면 귀물로 대접받을 것이 뻔했다.

그런가 하면 기린 모양의 연적도 대구소 향리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발톱을 숨긴 채 웅크리고 앉아서 뚜껑 쪽을 돌아보는 기린 모양의 연적이였다. 목에 방울소리가 날 듯 방울을 매달고 있고, 엉덩이를 타고 올라온 꼬리의 끝부분이 뚜껑 끝을 감고 있는데 은근히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눈은 음각 선으로 짚고, 갈기를 동글동글하게 음각 선으로 처리하여 생동감이 느껴졌다. 기린은 태평성대에 나타난다는 길상(吉祥)의 동물로 도공들이 즐겨 만들었는데, 향로나 벼루 등의 조각물로도 응용했다.

대구소 향리가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은 사당마을 가마였다. 가마들이 쌍계사 쪽에서 미산포가 가까운 곳으로 몇 십 년에 걸쳐 내려온 사실 때문이었다. 가마들이 자꾸 탐진바다 쪽으로 내려온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가마 땀감인 소나무와 참나무가 쌍계사가 가까운 천개산 산자락부터 소진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산한 청자를 미산포 포구로 운반하기가 용이했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사당마을 도공들의 청자 수준은 다른 어느 마을보다 앞섰다.

사당마을 가마에서 대구소 향리가 한눈에 반했던 것은 청자사자모양 베개였다. 높이는 어른 손가락 반 뽕쯤으로 높은 고침(高枕)은 아니었고, 길이는 한 뽕 반쯤으로 넉넉했다. 그런데 베개의 크기보다 베개 위판을 떠받치고 있는 암수로 보이는 두 마리의 사자 조각이 일품이었다. 가슴에 각기 방울을 달고 있는 두 마리 사자는 머리로만 베개 위판을 받치고 있는데, 일부러 과장한 굵은 네 다리로 장방형의 밑판을 뚫은 모습은 힘이 넘쳐났다. 그러니 위판을 머리로만 받쳐도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이 들었다. 위판은 연잎을 형상화했고 연맥이 음각 선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머리를 누였을 때 은은한 연꽃향기가 날 것만 같았다.

뿐만 아니라 비색은 최상급이었으며, 광택이 번지르르 살아 있었다. 향아리 등 큰 작품에서 나타나는 자잘한 균열인 빙열(氷裂)도 없었다.

그런가 하면 사당마을 가마에는 찻자리에 다식용 대접 대신에 쓰일 것 같은 아주 아름다운 청자양각모란무늬꽃모양받침대도 있었다. 윗면을 12등분해서 빗살처럼 음각으로 표현했고, 옆면에는 모란무늬들을 양각으로도드라지게 조각하여 눈을 즐겁게 했다.

사당마을 가마에서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청자기물도 많았다.

통통한 죽순 모양으로 만든 청자 주전자가 그 한 예였다. 높이는 어른 손 한 뼘 반 정도이고, 밑바닥은 반 뼘쯤 되었다. 손잡이는 대나무 가지를 본뒀고, 손잡이 끝과 물이 나오는 부리 끝은 수평이었다. 이는 주전자를 기울일 때 물이 마지막까지 잘 따라지도록 계산된 것이었다. 또한 뚜껑은 죽순 끝을 도려낸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작은 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빙열이 없다는 것은 도공에게는 행운이었을 터이고, 가마 속에서 불의 심판을 잘 받았다는 것을 뜻했다.

당송의 삼족(三足) 청동화로를 모방한 청자화로도 있었다. 사실 청자의 시원은 청동제기들에서 발전한 것이기도 했다. 녹이 스는 청동제기를 보완하고자 옥이나 청색을 신성하게 생각했던 당나라 도공들이 청자를 고안해 냈던 것이다. 청자화로의 크기는 소년의 손 한 뼘 정도이고 높이는 그보다 조금 작았다. 그러니까 청자화로는 선비가 사랑방에 들여 두고 숯불을 혼자 쬐는 정도의 크기였는데 격조가 있고 야무졌다. 원통형 몸통을 6등분하여 각 칸마다 용무늬와 뇌문(雷紋)을 넣어 신성하게 보였는데, 천둥번개 치는 하늘에 용이 날고 있으니 화로의 주인은 하늘을 우러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늙은 군관이 말했다

“향리 나리, 차는 드시지 않고 무신 생각을 하고 겨신게라우?”

“방금 보고 온 청자덜을 머릿속에서 또 보고 있소.”

“아따, 나리맨치 청자를 좋아허는 분도 읊을 것이요잉.”

“탐진에 사는 복이요. 다른 복보다 안복(眼福)이 으뜸일 것이요.”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말이였다. 그러나 늙은 군관은 얼른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는 아무리 봐도 고것이 고것이드그만요. 당달봉사가 따로 읍지라.”
“애정이 읍응께 그라요. 못 생긴 얼굴도 자꼬 보든 군이 있어보이테끼
청자도 마찬가지로.”
“지는 당최 모르겠당께라. 어차든지 낼은 군사덜을 텔꼬 월등사를
댕겨올라요. 스님이 여그까지 온 것은 청자전을 급히 쓸 모양이그만요.”

대구소 향리는 차를 한 잔 냉수처럼 훌쩍 마시고는 당전을 나와 창고로
갔다. 문득 창고에 있는 청자 두 점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이미 주인이
정해진 청자인데 청자운반선이 오면 개경으로 보낼 물건이었다. 창고지기
군사가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러자 대구소 향리가 보고 싶었던 청자 두 점이
어둠 속에서 반짝거리며 나타났다. 마치 대구소 향리 품에 와락 안기는
듯했다.

대구소 향리의 눈에 먼저 떨어진 것은 청자 향완(香碗)이었다. 향완이란
부처에게 향을 올리는 입이 큰 향로였다. 언뜻 보면 절구 같았다. 높이는
어른 손 한 뼘 반 남짓 되고, 입과 바닥은 소년 손 한 뼘쯤으로 입의 반쯤
되었다. 향완은 받침과 몸통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두 부분 모두 연꽃
잎 무늬가 양각돼 있었다. 연꽃 속에서 향이 피어오르는 것을 상상하게끔
만든 향로인데 비색청자이면서 작은 크기이지만 단정하고 웅장함을 주었다.
입과 받침의 크기가 같아서 그런 느낌을 주었다. 개경 왕실에서 주문한
것으로 보아 왕실원찰에 보내질 것 같은데 대구소 향리는 청자운반선에
실려 가는 것이 섭섭할 만큼 청자양각연꽃무늬향완을 아꼈다.

‘요런 향완은 월등사에서 가져부러야 험디. 쫓쫓.’

대구소 향리는 소리 나게 혀를 찼다. 그러자 젊은 군사가 말했다.

“향리 나리. 뭣이 잘못됐습니까요?”

“아닐세. 나는 이 향완만 보면 가심이 막 뛰어서 견딜 수가 읍다네.”

“이이고메, 고로코름 좋습니까요?”

“어찌해서 군사덜은 청자의 가치를 모르는가!”

대구소 향리는 젊은 군사를 무시하고 또 하나의 향로 앞에 섰다. 이 향로는 대신이 자기 문중의 사당에 쓰겠다고 주문한 것이었다. 직사각형의 향로는 얼핏 보면 아주 단순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자세히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향로 입구 전은 덩굴무늬를 음각했으며 사면의 몸통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했다. 다만 음각선이어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어쨌든 물가 풍경인데 가운데 꽃나무를 중심으로 버드나무와 갈대를 배치하였고, 갈대 위에는 한 쌍의 새가 마주보고 있었다. 물에서 헤엄치는 오리와 서 있는 왜가리를 대칭으로 그린 것인데 비색은 양호한 편이었다. 높이는 어른 손으로 한 뼘 정도, 폭은 한 뼘 반쯤이고, 길이는 두 뼘 남짓 되었다.



그러나 내일이라도 청자운반선이 온다면 대구소 향리의 감상은 더는 못할 터였다. 대부분 주문받은 청자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보름 뒤 장흥부 치소에서 청자운반선은 당분간 운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군사들이 청자전을 월등사에 날라다준 며칠 후였다. 개경에서 변란이 발생했던 것이다. 정중부의 난이었다. 대구소 향리는 청자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을 떠나서 상상도 못한 변란이었으므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의종24년(1170).

개경의 공학금군(控鶴禁軍) 군관인 정중부는 인종 때는 견룡대정(牽龍隊正)이란 낮은 초급 지휘관이었는데, 견룡(牽龍)이란 왕을 호위하거나 의식을 담당하는 숙위군이였다. 그런데 정중부는 인종이 행차할 때마다 가끔 불만을 터뜨렸다. 인종이 참석한 선달 그믐날 밤의 나례(儼禮) 중이었다. 나례란 목은해의 잡귀를 몰아내기 위해 행하던 궁중행사였다.

그때 김부식의 아들인 어린 내시 김돈중(金敦中)이 촛불로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 모욕을 주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김돈중도 평소에 무신을 무시했던 것이다. 자신의 멋진 수염을 자랑하며 다니던 정중부는 분기탱천하여 김돈중의 뺨을 치고 험한 상소리를 했다. 이에 김부식은 인종에게 정중부를 처벌하라고 요구했고, 인종은 허락한 듯했지만 흐지부지 넘기면서 무마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무신과 문신간의 대립은 노골화되었다. 그러는 중에도 정중부는 인종의 신임을 받아 근시(近侍)했고, 의종 초에는 교위(校尉)가 되었다. 교위는 두 명의 대정을 통솔하는 부대의 중급지휘관이였다. 그런데 정중부의 불만은 의종 때에도 마찬가지로였다. 왕이

주연을 베풀 때마다 문신은 상석에서 시를 짓거나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무신들은 그 자리의 경비를 맡아 고기냄새나 맡으며 추위에 떨었던 것이다.

마침내 정중부는 반역을 결심했다. 의종이 화평재(和平齋)로 행차했을 때였다. 숙위군의 부대장격인 견룡행수(牽龍行首) 이의방(李義方), 이고(李高) 등과 함께 거사를 모의했던 것이다. 이윽고 정중부 일당은 왕이 연복정(延福亭)에서 흥왕사(興王寺)를 거쳐 보현원(普賢院)에 이르렀을 때 왕을 수행하던 문신과 환관(宦官) 등을 무참히 살해해버렸다.

정중부는 보현원에서 거사가 뜻대로 되자 즉시 개경 성안으로 쳐들어갔다. 궁궐과 태자궁으로 잠입해 반항하는 문신 50여 명을 죽인 뒤 의종은 절해고도인 거제현(巨濟縣)으로, 태자는 진도현(珍島縣)으로 유배시키고 왕권을 탈취했다.

그런 뒤 정중부 일당은 의종 아우인 익양공 왕호(翼陽公 王皓)를 옹립했다. 왕호가 곧 명종이었다. 명종도 공예태후의 아들이었지만 그녀는 2년 뒤 또 한 번의 비통한 소식을 더 듣고 태후별궁에서 드리눅고 말았다. 그러니까 명종3년(1173) 동북면병마사 김보당(金甫當)이 의종 복위를 명분으로 거병했으나 실패했고, 계림으로 유배지를 옮겼던 의종은 이의민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되어 곤원사(坤元寺) 북쪽 연못에 던져져 버렸던 것이다.

공예태후는 양이정을 지어 바친 효자 의종을 잊지 못해 식음을 전폐하며 맞섰다. 그러나 친아들이자 명종의 동생인 승통 현희가 태후별궁으로 찾아와서 간곡하게 읍소하자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태후마마, 몸을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형님께서 양이정을 지어 바친 것도

몸을 잘 돌보라는 뜻이었사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이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어찌 내가 편할 수 있단 말이오!”

“새로 즉위하신 폐하도 마마의 아들이옵니다. 폐하께서 선왕의 못까지 다해 효도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궁녀가 내온 상을 물리치지 마시옵소서.”

결국 공예태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종의 즉위를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내렸다. 온갖 풍상을 다 겪어온 공예태후에게는 그런 결기가 있었다. 무엇보다 공예태후는 명종이 마흔 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만 했던 것이다. 무신들에게 아들을 또 잃을 수는 없었다.

한편, 탐진에도 변화가 뒤따랐다. 대구소 향리가 개경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으로 미질을 앓다가 끝내 숨을 거둔 것이었다. 청자운반선이 끊긴 탓에 탐진의 청자도 개경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잠시 휴지기를 맞았다.<계속>